

■문학의 향기

백일홍	권은영 權恩永
오늘의 삶속에 머문 붉은 생채기 가슴 깊이 묻어두고 말없이 피는 한송이의 침묵	
층층이 쌓인 날들 햇살도 상처를 지나야 더 붉어지는 오늘 바람은 그 곁을 오래 서성인다	
벌레 소리 자욱한 달무리 진 밤 쓸쓸한 담장에 기대어 다하지 못한 말을 백일의 침묵으로 피워 올린다	
꽃은 지는 것이 아니다 제 안에 저문 계절 한 겹씩 내려놓는 것을 마침내 빈 가지 끝에 붉은 마음 한 줄기 세상의 빛을 향해 남아 있다	- 약력 - 삼척 출생, 이화여대 국문학과 졸업, 2015년 《창조문예》시 등단, 시집 『길 위에서』 외, 창조문예상·한국기독교문학상 외, 한국문인협회 회원, 이대동창문인회·한국기독교문인협회 이사, 창조문예문인협회 회장 역임, 태사문학회 회원.

북어	권순자 權順慈
입 벌린 북어 한마리 괜한 눈에 허공을 담아내고 있다	
술한 울음 토해낸 북어 빈 가슴 들어 풍경소리 낸다 물길 수백 리 휘저으며 멀고 고단한 길 저어온 지느러미, 바싹 마른 지느러미 더 이상 바다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한껏 가벼워진 몸 일으켜 허공으로 날아갈 기세다	
세상의 날개 없는 것들이 가벼워진 몸 바람의 날개에 얹어보라 애타던 것 놓아버린 멍울진 몸 들어 금빛 지느러미 펼친 햇살에 올라보라 풍화한 얇은 생 지느러미 날갯짓해 보라	
간절히 마른 것들, 공중에 꽃히는 날갯짓이 환하다	- 약력 - 1986년 《포항문학》 등단, 2003년 《심상》 등단. 시집 『소년과 뱀과 소녀를』 외, 시선집 『애인이 기다리는 저녁』, 영역시집 『Mother's Dawn』, 『A Thousand Tears』, 프랑스어 시집 『Poète en pleine nuit』(야밤의 시인), 오디오북 『우묵 횃집』, 양천문인협회 회장 역임. 태사문학 사무국장.

■권순공의 온고지신溫故知新

〈항우본기(項羽本紀)〉 천하의 패권을 다룬 영웅의 몰락



권순공
(세명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사마천(司馬遷, B.C. 145경~B.C. 85경)의 『사기(史記)』는 사건이나 인물 중심의 기년체(紀年體) 역사서로 〈본기(本紀)〉·〈표(表)〉·〈서(書)〉·〈세가(世家)〉·〈열전(列傳)〉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인물에 대한 기록은 〈본기〉·〈세가〉·〈열전〉이다. 〈본기〉는 천자의 기록, 〈세가〉는 춘추전국시대 및 전·한대 제후의 기록, 〈열전〉은 그 밖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분야별 기록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중국을 통일한 천자가 아닌에도 〈본기〉에 포함된 인물이 바로 ‘서초패왕(西楚霸王)’ 항우(項羽)로, 『사기』를 통틀어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다. 〈항우본기〉역시 가장 재미있는 기록임에는 틀림없다. 초(楚)나라와 한(漢)나라가 다투는 이른바 『초한지(楚漢誌)』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면 항우는 어떤 인물이고 왜 패망하게 됐는가?

왕도(王道)를 포기하고 패도(霸道)의 길로
항우의 가장 중요한 실패 원인은 바로 인덕(仁德)으로 다스리는 ‘왕도’의 길을 포기하고 무력으로 다스리는 ‘패도’의 길을 추구한 데 있다. 항우는 집안이 대대로 초나라 장군의 집안이고 힘 또한 대단해서 커다란 술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릴 정도였다.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만인을 대적하는 일을 배우겠다” 하여 병법을 익혔으니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던 셈이다. 거록(巨鹿)을 점령하는데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간 다음 배를 모두 가라앉히고, 술과 시루 등 취사도구를 깨트리고, 막사를 불사른 뒤 3일분의 군량만을 휴대함으로써 시종들에게 이제 돌아올 수 없으니 필사적으로 싸울 것을 독려하여 성을 함락시키기도 했다. 10여 진영의 제후군들이 초나라 군사들의 싸움 광경을 보고 모두 겁을 먹고 두려워 항우의 휘하가 되고자 했다. 처

음 초나라 회왕(懷王)이 진나라 도읍인 함양(咸陽)에 먼저 들어가는 자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지만, 위낙 항우의 기세가 대단하여 유방(劉邦)은 오히려 함양에 들어가 모든 것을 정리한 뒤에 항우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몸을 낮췄다. 그 무렵 항우의 병사는 40만으로 홍문(鴻門)에 진을 치고 있었고, 유방의 병사는 10만으로 패상(霸上)에 주둔하고 있었다. 기세나 병력이나 물자 등 모든 면에서 유방은 항우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해서 패배하게 됐던가? 사마천도 논평에서 “진말(秦末)의 대세를 틈타 민관에서 흥기하여 3년 만에 마침내 다섯 제후를 거느리고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리고는 왕, 후를 봉하니 모든 정령(政令)이 항우에게서 나왔으며 자신을 ‘패왕(霸王)’이라 칭했다.”고 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지는 못한 셈이다. 왜 그랬을까? 가장 중요하게는 인덕을 내세우지 않았다. 진나라 군과 대치하며 싸우다가 진의 장수 장합(章邯)은 항복했지만 양측 병사들이 갈등이 있는 것을 빌미로 20여만 명을 진나라 병사들을 신안성 남쪽에 생매장하였다. 게다가 진나라에 들어가는는 함양을 도둑하고, 투항한 진나라 왕자 영(嬰)을 죽이고, 진나라 궁실을 모두 불태웠는데, 3개월 동안을 타고고 꺼지지 않았다. 이처럼 지나가는 곳마다 모두 도륙하니 백성들이 저승사자 같은 항우를 반길 수가 없었다. 반면 유방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보호해주며 선정을 베푸니 그 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자신이 왕으로 세웠던 초의 의제(義帝)를 죽이기까지 하여 명분을 스스로 어겼다.(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의 죽음을 빗댄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이 바로 이 얘기다)

다음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버렸다. 적어도 항우가 유방에게 이길 두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는 항우가 주둔한 홍문에서의 잔치 자리였다. 항우의 책사인 범증(范增)이 유방을 살펴보니 천하의 기세가 있음을 알고 제거하려고 했지만, 항우의 어정쩡한 태도로 실패하고 “어린아이와 더불어 대사를 도모할 수가 없다. 천하를 빼

앗을 자는 반드시 패공(沛公)일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그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한탄하였다.

두 번째는 팽성(彭城) 전투에서 항우가 크게 이겨 유방이 위험에 처하자 강화를 요청했는데, 범증이 “지금 한나라 군을 해치우기 쉬운 때입니다. 지금 놓아주고 취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했지만 진평(陳平)의 이간책으로 결국 범증은 직을 내려놓고 쫓겨나 팽성으로 돌아가다 도중에서 독창이 나서 죽고 말았다. 그 이후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지나친 자만심 때문에 스스로 몰락의 길로
반면 지지기반이나 능력이나 크지 않았던 유방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 서로 점전할 무렵 항우는 군량이 떨어져 곤궁한 지경에 처했는데, 마침 한나라 쪽의 제의로 천하를 둘로 나누어 홍구(鴻溝)를 중심으로 서쪽은 한나라, 동쪽은 초나라 영토로 할 것을 약속하고 불모로 잡혔던 유방의 부모와 처자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항우는 군대를 철수시켜 동쪽으로 돌아갔지만 유방은 장량과 진평의 건의를 받아들여 초나라를 공격해 결국 멸망시키기에 이르렀다. 약속을 어기고 뒤통수를 친 셈이지만 결과는 엄청났다. 결국 천하의 유방의 한나라가 차지했고 항우는 오강(烏江)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오강의 정장(亭長)이 배를 대고 강동으로 가기를 권했지만 항우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데, 내가 건너서 무얼 하겠나?”하며 “강동의 자제들이 지금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거늘 설사 강동의 부형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왕으로 삼아준다 한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대하겠나? 설사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해도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어떤 꼼수도 거부하는 당당한 자세가 항우의 매력이고 실패한 영웅임에도 ‘본기’의 자리를 차지한 이유지만 이는 결국 항우의 자만심에 기인한다. 처음 진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관중(關中)의 땅이 산하로 막혀있고 비옥하여 천하의 도읍



으로 좋다고 했지만 항우는 “부귀한 뒤에 고향에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은 비단옷을 입고 밭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누가 그것을 알아주리오?”라며 거부했다. 사실 중국의 역대 국가들이 관중 지역인 장안에 도움을 정했던 것은 이처럼 근거가 있었던 까닭이었지만 항우는 자만심 때문에 좋은 기회를 버린 셈이다.

사마천도 “항우는 스스로 공로를 자랑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지혜만을 앞세워 옛것을 스승삼지 아니하며, 패왕의 공업(功業)이라고 하고는 무력으로 천하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다가 5년 만에 나라를 망치고 몸은 동성(東城)에서 죽으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책망하지 않았으니 이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리고는 끝내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결코 내가 싸움을 잘하지 못한 죄가 아니다’라는 말로 핑계를 삼았으니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논평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웅들의 몰락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자만심이 분명 자리하고 있다. 그리곤 실패를 종종 ‘하늘의 탓’으로 돌린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으면 분명 깨달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항우본기〉를 읽으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서울지역종친회 사적지 참배

회원 여러분!

포은 정몽주 선생은 고려말 마지막 충신으로서 고려 삼은(또는 려말 3은) 중 한 사람입니다. 보통 려말 3은은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를 꼽습니다.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기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 ♣ 일 시 : 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11시
- ♣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오포 정몽주 선생 묘소
- ♣ 교 통 : 전철 분당선 죽전역 앞 버스정류장 버스 660번.66번 탑승 20분 소요 정몽주 선생 묘소앞 하차

♣연락처:

-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6년 10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66차 정기산행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66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일 시 : 2026년 10월 18일(일) 10시(시간 엄수)
- ♣ 집합장소 : 1.5호선 신길역 2번 출구앞 광장
- ♣ 산 행 지 : 여의도샛강 둘레길
- ♣ 정기총회 장소: 점심 도시락, 충분한 물, 간식 등

- 회 장 권경탁: 010-3796-4047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종우: 010-5418-4299

2026년 10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경탁